大興電管內各地 料金減下規定
지난달부터소급되어 八月一日부터適用

民族的差別이 甚한 煙草荷置場主
일본인에게는허가하면서 조선인에게는취소도불허

淸凉飮料試驗

巨濟의豪雨後 農作被害不少
◇각처에서라가만히나서 一般農夫憂愁에싸혀

出版法違反으로 멀리逃走

만들어가지고 귀성경찰서(龜城警察署)에가서 이원고를경무국(警務局)에보내달라하매 신문지법이 아니고 일본인이아닌이상 그리할수업고 출판법(出版法)에의하야수속하되 그면주재소(駐在所)에가서 타합하여하라하는지라 곳 그길로집으로돌아와서 책을권본만든후 그면주재소에납본(納本)으로책세권을보내고 이어귀성경찰서에서 호출함으로 출두한즉 출판법위반이라하며 아직은나가잇다가 불일내에 들어오라함으로 곳집으로돌아와서 부모에게하는말이 조선안에서는요 만한일도 자유로 할수업스니 몃해가되든지 타국으로가서 잇다가 오겟다하며 그동안에는 편지까지라도아니할터이니부모에서는 아못조록 안심하고잇스라하고 멧칠전에 집을떠나갓다더라(귀성)

開城朴淵間 自動車不通
련일폭우로

고려명승디박연폭포탐승객(高麗名勝地朴淵瀑布探勝客)을 위하야 개성고려자동차부(開城高麗自働車部)에서는 개성박연폭포간(開城朴淵瀑布間)을 매일(每日)정긔(定期)로운전(運轉)하야 오든바 쏘다지는 폭우로인하야 도로와교거(橋渠)가 파손된곳이만하 압흐로 약일주간은 운뎐치못한다하며 딸아서개성길수간(開城吉水間)도불통된다더라(개성)

求禮馬山水組 利害關係者大會
극도로흥분된백여회중 박수남할리에의견일치
積極的進行을決議

지난륙월 삼십일에 마산부수리해관계위원회(馬山水利組利害關係委員會)에서 적극덕대책을토의코자리해관계자대회를개최한다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농절에 가장번망한써입으로 부득이 연긔하여오던바 지난십팔일 하오세시에마산면 랭천리동창(馬山面冷泉里洞廳)에서 마산수리조합리해관계디주와 소작인대회(馬山水利組合利害關係地主及小作人大會)를열고 백여회중의극도로흥분된어조는 장내가 매우소연하엿스며 일사천리의형세로 다음과가튼사항을 토의결뎡하고즉시실행하기로한다더라

◇決議事項

一、馬山水利組合同意書返還請求訴訟提起의件

一、訴訟費用及附帶費로千二百圓을共同負債의件

一、委員으로廣判岩氏一人을增選의件

一、郡當局에委員을派遣하야最後通牒을하는同時에意見質問의件

同委員 鄭淳晃 宣太燮 梁?珙 高翔孝 金敬順

一、訴訟實行委員의件

同委員 金暎 宣太燮(求禮)

夫婦不和로 言爭끄테溺死

평남평원군 석암면석암리(平南平原郡石岩面石岩里) 리호민(李浩敏)의둘재아들 도석(道奭)(一九)의처 신성녀(申姓女)(二〇)는 지난십륙일그이웃에 잇는어느못에빠저죽엇다는데이제그내용을 알어보건대 전긔도석의부처는 항상사히가 조치못하야싸홈이 자자왓섯다는바 그날도 엇던일로 말다툼끄테 그와가티싸저죽은것이라더라(평원)

前巡查部長이 靑年을短刀亂刺
자긔의며느리가오이 따는 것을정당하게말리엇다고

지난십칠일오후 팔시경에 장단역전김승희(長湍驛前金東熙)씨 집문전에서 이십오륙세의 절믄남자를 무수히란타하는 동시에 일변단도를 두두면서 사람을죽인다고 일대활극을 일우어부근일대는 삽시간에 인산인해를일우엇다는데 그내용을 들은바에 의하면 지난십륙일오후 십일시경에 장단역전 동장려관의고용인김윤일(金允一)(二六)과동명려관의고용인 량승태(梁承泰)(一九)량인이 부근 공원에산보를 가든중 아닌밤중에 부녀자 두명이남의채권에서 외를따므로 두녀자들붓들고보즉 전순사부장 김동희(金東熙)씨의 자부와 한집에서동거하는 차점돌의처 리이분(車點乭妻李彝粉)(一九)임으로조흔말로 돌리어 보내고수십분후에다시 그부근을 배회하든바 전긔두명의 녀자가 또다시와서 오이를뎌서 보구니를가지고 와서 오이를땃슴으로 전긔두청년은 그불미한 행동에 분개하야 아닌밤중에 부녀가 남의채권에 두번식와서 오이를따는것은무녀자의도리가아님을 책하얏든바 녀자는 잘못됨을 사과함으로 후일을경계하야 보냇든바 그이튼날오후팔시경에 전긔 리이분의 남편되는 차점돌이가 술을잔득 먹고자긔형되는 차홍관과 가티와서 전긔두청년을 김동희씨의 집까지붓들고가서방중에녀자를농락하얏다는구실로 무수히 란타하는동시에 김동희는 칼부로단도를가지고 찔러죽인다고 날뛰엿스나 엽해사람이 제지한결과 다행히 무사하얏다는데 부근일대는 삽시간에 인산인해를일우는동시에 이사실을 접한당디경찰서에서는 서원이 출장하야소동을 제지하고 전긔두녀자와두청년을 호출하야 엄중히취됴하얏다는데 일반인사는 전긔두녀자의불미한 행동과 전순사부장 김동희의 만행을 타매하는동시에경찰당국의처치여하를흥미잇게주목한다더라

精神病든日女 親父短刀刺殺
◇동시에자긔목도찔러

지난십팔일 오전일곱시삼십분경에 영일군포항면대정뎡(迎日郡浦項面大正町)서도이랑(西島二郎)의안해『쓰이』(ツイ)(四九)라는 녀자는본래부터 『히스테리』병에걸리어 극렬한까닭에 그전부터의사에게 치료를바다오던자이엇다는데그날에자긔실부전뎐미장(前田米藏)(六六)을전긔시일에 예리(銳利)한 면도(面刀)로 인후부(咽喉)를 베히고 다시자긔의 목까지베히엇는데 자긔아버지는 즉시의사에게가서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동일시십분경에 무참히도세상을떠낫는바 그원인은쓰이(ツイ)는병도잇슬뿐만아니라 남편되는이는 본시가난하든중 고리대금(高利貸金)으로성공하야칠팔만원의 재산을 가지고잇는바 항상인해의 친척이 왕래함을 꺼리어온터이라 아마 정신상고통으로 자긔친부를 죽이고 자긔까지 자살한모양 이라더라

記者를監禁

이상사건이 돌발되자 경성일일신문대구지국 긔자박문효(京城日日新聞大邱支局記者 朴文孝)군이 현장까지가서 사실을조사코자출장중이던바 엇더한 사정인지는 알수업스나긔금 포항경찰서에감금되엇다는데이급보를들은동아(송긔찬宋箕贊)군과매신리우식(每申李雨植)군이포항까지 갓스며 경우에의하여는이십일에대구긔자단(大邱記者團)에서출장할는지도 모르겟다더라(대구)

十七名一團의 强盜逮捕
여당이또잇서

경북영일군 포항(慶北迎日郡浦項)경찰서에근무하는 리(李)특무형사 (特務刑事)가 모사건범인을 톄포하려고 경주(慶州)방면에 출장중로에 대강도사건(大强盜事件)을 발견하고즉시대활동을 개시하야 동단십이명중칠명은 각각자긔집에잇는것을 톄포하고 남은다섯명은 대구로들어온 형적이 잇슴으로 대구까지와서 활동중 밀양삼랑진(三浪津)방면으로간 형적이잇슴으로 추격하엿스나 량산(梁山)방면으로 간것을 탐문하고 그곳까지가서 활동중이라는바 자세한사실은 아직알수업스며 이미톄포한 일곱명은 포항서로인치하야 방금엄중히 취됴중이라는데 남아지 다섯명도 불일내에 톄포할모양이라하며 사건은상당히 중대한 모양이라더라(대구)

公有物橫領한面長 結局警察이取調
기외에인민의피해도만타

보녕군 주포면장리중현(保寧郡周浦面長李重鉉)은관공유물(官公有物)을횡령한사실로면민이고발을하야 보녕경찰서(保寧警察署) 사법주임최경부(崔警部)는특부안상호(安相浩)를대동하고금월십칠일에 주포주재소에출장하야엄중한취됴를하고가택수색까지하엿다는데그자세한내용을 들은즉 면장리중현은본시 품행이 방정치못한자로 면장의 중임을 지우금 유지케됨도면민의소망이아니던바리중현은구관사의 재목과 시장헐은함석을갓다가 자긔사택을 건축하고기타 인민에게 분급하는 금권을횡령하엿다는 사실로 면민이고발을 한것임으로 출장경관은 당사자를취됴하는동시에증인으로이십여명의신문이잇슨후귀서하엿다더라(보령)

飛行術배우고저 各處에서詐欺
동경일본비행학교장의 도장을위조하야사긔해
向學熱로생긴詐欺

대구부 남산뎡 삼백칠십구번디(大邱府南山町)박인수(朴仁壽)(一六)는 항상언제든지비행사(飛行士)가되어공중(空中)으로날아단여보랴고하든중지난번문경(聞慶)에서참혹하게도이세상을떠난 고리긔연비행사(故李基演飛行士)의조수(助手)에까지들어간일이잇섯스며 그후대구(大邱)로와서 미력자동차부(未力自働車部)에잇스면서일본으로가서 류학을하고저하나 원수의돈이업슴으로 항상 철련지한으로 지나든중 근일에와서는그의맘은 변하야엇더한 악감을먹고자칭 동경부하립천정 일본비행학교생도증(自稱東京府下日本飛行學校生徒證)을위조하여가지고 동교교장의인장(同校校長印章)을시내본정일뎡목오십륙번디(市內本町一丁目五六番地)인판업최병채(印版業崔炳琛)(四〇)와리상길(李相吉)(二八)에게가서 신분증명서(身分證明書)에다가찍어서시내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말이 나는 일본비행학교에다니는데금번에 특별히 보결생다섯명(補缺生五名)을모집하려왓스니학금이십원만주면 밥도 먹여주고일금까지 준다고 감언리설로꾀어가지고 다섯명에게 돈백원(百圓)을 거두어가지고 이십일에일본으로 가려다가 발각되어방금엄중히 취됴하는중이며 도장업자두명은 구류 이십구일에처하엿는바 근래에 소년으로서는가장 묘하게도사긔한모양이라더라(대구)

人肉을팔아서 蛇腹을채운者

대구촌상뎡십사번디(大邱村上町一四番地) 일비신오(日比新吾)(四八)는소개업(紹介業)을하고잇는것을긔화로한명에게일백팔 사십원식 바다먹은후에 장부에는칠십원이라고 긔록 한것이발각되자대구서 보안계(大邱署保安係)에서는그물인처하고엄중히취됴한 결과 한두명에게만아니라십여명에 그와가티 꾹리를 먹엇스며 또한그뿐만 아니라그는허가도 업는산본하루(山本ハル)(二二)라는 예기를 자긔집뒤방에두고 가만히손님을 대하게하야그의 살을팔아먹든것이 발각되엇슴으로 방금대구서 에서는 엄중히취조하는중이라더라(대구)

電車自働車衝突

십구일오후한시반경에견지동(堅志洞)칠십번디압 전차궤도(電車軌道)에서 제이백이십삼호 전차와경성부백칠십륙호뻐스리는자동차와충돌하얏스나다행이 량편에 아모손해는 업섯다고

紳士로組織된賭博團 돈따서遊興에消費
피해자는집판돈을다일허
四五百圓주고告訴取下

진남포에 신사와부호들의 큰도박단이 써때로 열린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최근에도진남포(鎭南浦)후포리(後浦里)박○식(朴○植)과룡정리(龍井里)류○건(柳○健)등의 신사로 자처하는자들이공모로 도박상습자 리관조(李官朝)김효일(金孝一)두자를 매수하여가지고 룡정리(龍井里)김병준의집판돈 이천팔백여원을 전부빼아슨후 문뎨가일어날가 념려하야 자동차로평양까지가서 대동강 배노리를하고 김병준에게 기생외입을 시키는등 박량이놀나가 그도부족하엿든지 남포로돌아와서 밤낫주사청루로 다니기와 자동차로번다히 시내를 편주하는것을 김병춘의형 김병강(金炳剛)이가 탐지하고검사국에 고소를 뎨긔한것을 모모들의알선으로 돈사오백원을돌려주고 고소를취하 하얏다는데 경찰에서도 이지음에야 알엇든지 비밀리에 됴사중이라하며 리관조는 도주하엿다더라(진남포)

醉中에亂打

아산군온양면 초사리(牙山郡溫陽面草沙里) 리근식의고용으로 잇는리태화(李泰化)(三〇)는동면 동리주원의 집에고용으로 잇는 리종현(李鍾鉉)(三〇)을무수란타하야 인후(咽喉)내부가 부시고 우편골이 파쇄되엇다는데 이제 그원인을 들은바에의하면 지난 십칠일 온천장날에 전긔리종현은리태화에게 장변으로 몰일원만달라하매 못주겟다 함으로리종현은 돈잇는놈만 사람이냐한즉리태화는 달려들어 란타하야 중상을내엇는데 소관온양서에 고소를제긔하엿다더라(아산)

殺人事件發生

지난십오일오전열시경에덕원면(德源郡)중앙수리조합 (中央水利組合) 저수디(貯水池)인 마산제(馬山堤)부근에나이사십여세가량되어보이는조선인남자 한명이 참혹하게도 피를흘리고 죽어잇는것을 지나가든 행인이 발견하고 소관 덕원서에급보하야 시톄를 경찰서로운반하야 공의가해부(解剖)한즉과 타살(打殺)로 판명되엇다는데 시톄근방에 돌몽이만히 노혀잇는것을보면 엇던자에게 로마저죽은듯하다하야 덕원서에서는 비상선을느리고 범인수사에대활동중이나 범인은오리무중에잡혓다더라(덕원)

五山講堂建築과 遝至한寄附金
◇전도양양한그학교

뎡주오산 고등보통학교(定州五山高等普通學校)대강당 건축을위하야 각디에서의연금을 내인씨명과금액은 아래와가튼바 그학교의전도는실로양양하다더라

定州郡趙昊淵金龍濟李東燮各千圓朴景瑞金持淳各五百圓崔大淸盧翼根各二百圓梁錫煥一百五十圓趙昱淵金周鉉金應奭盧周熙趙天奎金淳翼洪濟九李鍾薰安炳翊李樂聰金榮夏朴夏徵朴文徵白樂濟白樂重梁錫模金昌墉劉成祚李道根李翰善各百圓車得性朴光鳳各五十圓李鎭秋金義增吳胤錫金奎晟 玄允宗李基善 李永龍康瑞衡各二十圓金玉軫白樂雲李志龍文相翕各十圓 博川金壽長二百圓禹大敬金商七金泰浩李衡均鄭英鍋各百圓梁昇勳五十圓金胤冑金厚湜玄鍾德各三十圓羅順泰鄭基柱玄炳燮金濟泯各二十圓安錫泰劉炯金禎燮崔衡模成基燁郡永禧金得海劉基炳金洛淳鄭翊卓璉金秉伯金俊麟尹永和金相用李遇榮各十圓 寧邊郡金孝炳金雲鉉朴應晴各百圓申錫奎五十圓吳炯駿三十圓 申錫庸 文斌各十圓 熙川郡韓安奎金奎鶴金洙一各百圓金昌彦宋啓源各二十圓羅昌燮吳允贊各十圓昌城郡金應基姜炎祖文應周許塤、許濟、許涵許鑑李碩乾楊弼周全鳳梓金學俊金允碩文錫鎬李秉覵許燿各十圓江界郡江界商務會李福鉉各百圓孫應國五十圓田時恒金季春崔正植各三十圓斷煙同盟會金宗傑尹昌洙沈汝三徐熙淳金基盤各二十圓吳龍淵十五圓劉貞奎朴昌懋韓奉珉姜炳柱金錫璉崔建柔金利鴻文戴翰金舜根、江界面事務所一同金冀塤劉璘奎劉宗默金炳宣川面事務所一同金寬淳宋泰用劉基貞宋繼麟李銃亨各十圓 宣川郡桂錫朋百圓 龍川郡張大潤千圓 鐵山郡金尙沃二十圓 平原郡車豊鎬千圓車昌鎖三百圓車淳百車定鎬各百圓韓昌墉三十圓金淵穆安敬憲韋基喆李尙斌各二十圓金叢起李相玉李治魯朴碩煒白成駿宋黑泉申秉均崔慶洽韋秉植金秉善吳性源李時甲韓光鎬李賀鎭各十圓 安州郡韓泰勳三百圓吳德衍二百圓徐廷信李善郁李東衍白善復金龍奎金軫洙各百圓玄道澈禹弼舜張學俊高漢奎合參拾圓同友會吳德恒黃信五金明奎貳拾圓玄奎弘金聖奎李晋奎金秋濬文用奎金秉基李明奐金鐘泓金秉奎文景楨李學潤金翼洲宋奎煥金俊默金喆鎬文泰興安鼎觀金用鐸張東商車順正李明宇金曰洙各拾圓 成川郡韓正烈貳百圓羅鎔鼎馬聖鍾各貳拾圓李文奎朴用熙韓命富朴麟廷金東源黃在鼎金文玉各拾圓 順天郡李觀泳五拾圓金基廷拾五圓 价川郡玄秀鍾五拾圓玄基明參拾圓金錫承玄熙彥金鶴熙各貳拾圓金在樂金運熙金在殷金相權金明錫朴廷建玄基初玄營燁劉淳吉李昌鎬李膺熙李基朝崔昌鎬趙承鉉金秉瑄益盛商會弓慶楚各拾圓 黃海道金鴻亮十圓金應石元孝燮各貳百五拾圓鄭纘裕李繼天各貳百圓李忠健鄭達河金相殷全錫洌各百圓盧文祥延學斌閔丙讚朴運基崔錫浩金弘鳳各五拾圓李東熙鄭健裕吳宗錫參拾圓金瓚斗金學胤崔基恒崔秉恒閔丙德金慶俊李讚永金卿根李應五朴東楨金時業各貳拾圓尹完奎林敎夏各拾五圓鄭寅哲朴勝周官姜範植朴來完金泰希金斗默尹之貞金光善李承柱崔祥虎郭炳奎李基豊黃鎬晙吳漢根鄭寅錫林會稷金魯謙吳冕鎬李忠夏盧相翊金德謙各拾圓 京畿道金性洙百圓張鉉植五拾圓李應俊李聖玉各參拾圓李圭完金亨燮朴勝喆朴大赫各二十圓李光洙朴容喜崔錫李在鳳朴勝彬金用茂金泰榮各十圓

洪水後 道路不通
각하천범람으로

함남안변군 배화면(咸南安邊郡培花面)과 안도면(安道面)일대에는 지나간장마로인하야 농작물(農作物)의 피해가 불소하다하며 안변사고리(沙皐里)와 덕원군현면(德源郡縣面)경계사이에잇는 다리(橋梁)가 문허저교통에만흔 불편을주는동시 일반의비난이 적지안타는데 그리유는 현면(縣面)사무소에서 년년이파괴되는 다리를 항상불충분하게 수선을하야 여름한철은교통을주다하야 그가티비난이 자자하다더라(원산)

苔灘市 全部浸水

거금십칠년전 신해년 장마에전멸을당하엿던 황해도장연 태탄시(長淵苔灘市)는거간복구가되어 오든바지난십오일폭우에또동이러저서 보통학교와 면사무소와우편소와 금융조합과 례배당외에사백호 나되는 가옥이전부침수되엇는데 그중파괴된 집이열둘이오 시민전부는 다른곳에수용케한바 장연군청직원과 경찰서원은 이들구호 코자출장하엿다더라

朴敬化追悼式延期

경북영덕군 강구항(盈德郡江口港)도선장에서 일본인세명이 조선인 박경화(朴敬化)를 창파(滄波)에차너허죽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외로웁에싸인 그의처자와 동정의눈물을 색리는 일반인사며 특히 강구로동조합(勞働組合)과 강구청년회(江口靑年會)주최로 지난십륙일오후두시에 고박경화군의추도식(追悼式)을동사무실에서 개최하려하엿든바 여러가지 형편에딸아오는삼십일로연긔하엿다는데동정의눈물을뿜은련근인사와고독에싸인 처자는 슬음을억제코기다리는중이라고(영덕)

演藝와映畫

콜린、무ー어孃에게 百萬弗請求訴訟
퍼스트내슈낼會社에서
撮影契約을無視코脫退했다고

미국『퍼스트내수낼』회사의고문변호사인『노ー싼ー바ー간』씨는동사의전속녀우이든『콜린무ー어』양을 상대로백만불(조선돈으로이백만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을제긔하엿다

×

그리유는『콜린무ー어』양의남편인『쫀·막크맨』씨의탈퇴로인하야동양이퍼스트회사와금후부터다섯개의 특작영화에 출연할계약이잇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딸어서 동사의영화출연을 거절한때문으로 전긔한다섯개의 영화에『콜린무ー어』양이가진바 재능 과인긔(人氣)에의하야회사측에서 영화를제작하고 제작치못하는것은 금액으로써 보아약백만불의 손실을 보게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란 리유라한다

×

그런데무어양은 이문데만 업섯드면또ー지회쓰모ー리스』씨의감독으로『라이락피일때』라는 퍼스트회사창시이래의특작영화에주연할예정이엇섯다한다

紙上映畫封切

뽜리에테(曲藝團) 獨乙우파會社大作

原作……페릭스호렌델氏

脚色監督……에ー아뽀본氏

配役……

그사나히……에밀야닝쓰氏

그의안악……마리아데두사후트孃

싼서……리아드ー푸테이孃

알지네리……워ー익와드氏

×

뽜리에테(曲藝團)는독일(獨逸)의저명한명화제작업자인우ー파회사의작품으로무대로스크린으로다가리명성이놉흔『에밀야닝쓰』씨가주연한 걸작이라는바 동영화는 일본에서는 이미각디에서봉절되어 만흔 호평을바닷스며 조선에도 미구에수입되어내에서봉절이되리라한다

——(梗槪)——

한뒤무리는『함불그』라는곳에서 그의 안악과함께 배사공(船人) 들을상대로 조그만 구경터를경영하고잇섯다

어느날한사람의 수부가 그의집에한귀여운 소녀를다리고 왓는데그소녀는부모도업는가엽슨고아(孤兒)로써 갈래야 갈곳이업다는말을 듯고『쏘쓰』는그 소녀를마터서 길르기로하엿는바그소녀의 일홈은『벨다마리』라하엿다『쏘쓰』가경영하는조그만구경터에서 그소녀가 춤을추기시작하면 수만흔배사공 들은그의연려(艷麗)한육데(肉體)에미혹되어서 정신을 이럿다 그러나그것은다만수만흔배사공뿐만은 아니엇다 나희가이미사십이넘은『쏘쓰』는드듸어 그소녀에게 정신을일코 처자를뒤에남기어두고『벨다』와함께손에손목을잡고 멀리자최를 감추어버리고말엇다

백림(伯林)에온『쏘쓰』와『벨다』의두사람은 공중곡예사(空中曲藝師)인『알지네리』와함께 일을하게되엇다

그러는동안에『벨나』는『알지네리』에게 유혹이되어『쏘쓰』의눈을속여가며 두사람은 틈틈히비밀히맛나서 불의(不義)의 향락(享樂)에도취되엇스나 두사람사이에 비밀을알게된『쏘쓰』는 실망(失望)과분로(憤怒)를참지못하야『알지네리』에게 결투(決鬪)를신입하야 원한에불타는칼끗을『알지네리』의가슴에다 박은후 모든것을단념하고 당국에 자수를하엿다

재판의결과『쏘쓰』는 살인범(殺人犯)으로써 감옥(監獄)으로송치되엇스나 그는 하등의변명도아니하고 다만묵묵히 형(刑)에 복종하엿다

『쏘쓰』의 쓸쓸한그림자가 철창(鐵窓)속으로사러진뒤에그의마음속에잇는 열정과 분로(憤怒)와 실망(失望)을아는사람은 과연이세상에한사람도업섯든가?

…………(끗)

(사진은『뽜리에테』에주연한『에밀야닝쓰』씨)

僧房悲曲 〔61〕
(朝無斷撮影興行)

獨鵑作 羅雲奎撮影監督

괴인의출현 (四)

명진이가 은숙을 구하겟다고황황히 뛰어나간뒤로 은숙의고뫙과 정신의불안을겁하야 한잠도자지못하고 초조한시간을 보내고누엇든 영일은 문밧게서들리는 신발소리에 벌떡일어안젓다

문을열고 들어오는것은 과연명진과은숙 이엇다

『아! 옵바!』

모ー든착잡한 감정에 은숙은이의무릅에 쓸어젓다 어린애처럼 영일은방안은 잠시동안 옵바이는속울에 약속업는긴북이 흔들리고잇섯다

『옵바그런데 엇더케 저가거긔잇는줄을 아섯서요?』

『그것은나도모른다 네가어데가잇섯는지 모ー든비밀의 열쇠를쥐고 잇는이는 너를구해준이

눈물이냐? 이눈물을 아는사람이누구냐?

한참뒤에 명숙은 긴한숨을 쉬고입을열엇다

『옵바!』

『왜?』

『옵바가 이불상한동생을참으로 사랑하시거든 저를그필수씨가 떨어진 절벽밋까지다려다주서요』

『그건왜?』

『글세고 네 옵바』

명진은 소리를 버락질럿다 명숙은 어린애처럼 졸랏다

『예이철업는것아 이쏠게싸진것아 아죽도그악마가튼 남자를못잇고잇느냐!』

명진은 또한번 소리를질으고건너방으로 건너가서 홍태규에게 그가알고십허하는 돈 오천원의간곳과 대강한사정을 일러주어몰려보내기로하엿다

……한명진씨이다 명진씨는 명숙씨의 오바버니시다』

영일은먼저 이러케 명진을은숙에게 소개하고나서 은숙의아버지가 다녀들어간 이야기까지를말하고 그다음에는 은숙이가오는 자긔가당한일을 이야기하고맨끗트로 이사건의 정례를꼭로시킨 괴인한명진이가 모ー든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날까지의 일어난일의 시종을자세히알게하엿다 그리하여 날은고요히새엇다

새날은왓다

은숙이는 날이밝기를 기다려집에서 애쓰실 어머니와아버지를위하여 문안으로 들어가고은숙을 문안까지다려다주고 자긔집으로 돌아온명진은 비로소명숙에게 작일이래의 모든사정을자세히이야기하여들려주엇다

『그럼 옵바그필수씨는엇더케되엇서요?』

명숙은 걱정스럽게 물엇다

『그까짓것을생각는놈이 엇지된것을 누가알수잇니? 십여길두놈는 절벽에그대로 굴러버렷스니까……』

『아이 저일을어째 만일 그이가……몰아갓스면』

『그놈이죽는데 무엇이어째? 그런놈은 맛당히 참혹한죽엄을하여야할것이다 죄人갑시 반드시잇서야할것이다』

아모데ㅅ구도업시 안젓는 명숙의감은 눈에서는 구슬가튼눈물은 명숙이가 안은어린애의잠든쌤우에 씨기엇다

저주의 눈물이냐? 그리운

명진의집을나서는 홍태규는 뒤에서종요히불으는사람이잇섯다 그것은 명숙이엇다

『여보서요미안합니다마는 저와함께 그필수씨가잇는 곳으로좀가주서요』

『글세요』

『수고스러운대로 저를좀인도해주십시요』

태규는 명숙의 간절한청을저버리지못하야 압못보는 그를인도하여 필수가떨어저 잇다는곳까지를갓다

그러나 그곳에는 필수는그림자도업섯다

『아이 엇더케된셈일가요혼자서 몸을운동하서서 어데로가섯슬가요?』

『글세올시다 좌우간제가문안을들어가서 알아보면알겟지요』

『여보세요 그럼당신이문안들어가시는대로 곳좀알아 보서서케게로 긔별을좀해주세요』

『비아는대로 제가일부러라도 나와알려들이겟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그러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들은 다시명진의 집압까지와서헤어젓다

일진 풍운은 이로써 거치어다 이풍운이지나간뒤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평온한날이올것이냐?

또는 이폭풍뒤에 다시이는폭풍은그들의 정해(情海)에 엇더한 파도를 일으킬것이냐?

金恩淑……申一仙

崔榮一……朱三孫

韓明鎭……羅雲奎